영화 'Free Chol Soo Lee' 선댄스영화제 상영

'한인 이민자의 억울한 옥살이'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Free Chol Soo Lee'의 한 장면. 사진=페이스북(Free Chol Soo Lee)

1970년대 미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누명을 쓰고 약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한인 이민자의 사연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미국 선댄스영화제에서 선보였다.

줄리 하와 유진 이가 공동 감독으로 나서 제작한 영화 '이철수에게 자유를' (Free Chol Soo Lee)은 지난 20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린 제38회 선댄스영화제(2022)에서 21일과 23일, 양일에 걸쳐 상영됐다. 이 영화는 영화제 기간 동안 ▶29일: 테네시주 멤피스의 크로스타운극장,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파크웨이극장 ▶30일: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디지털 체육관 시네마, 노스캐롤라이나주 윈스턴세일럼의 a/perture 영화관, 매사추세츠주 애머스트의 애머스트시네마, 캔자스주 로렌스의 리버티홀 등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상영됐다.

영화는 고 이철수 씨가 1973년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에서 발생한 갱단 살인사건의 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하던 중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사회운동이 일어나 약 10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실화를 다루고 있다.

당시 이씨와 관련 없는 갱단 일원이 거리에서 총에 맞아 숨진 나흘 뒤 당국은 소년원 수감 전력이 있던 이씨를 체포했다. 이듬해 그는 백인 목격자의 부실한 증언만을 토대로 1급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게 된다. 그때 그의 나이는 21살에 불과했다.

당시 사건을 추적하던 탐사기자 이경원 씨가 백인 증인이 찰나의 순간 아시아인의 특징을 구별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보도를 계기로 '이철수구명위원회'가 조직됐다. 이후 이씨는 1982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이듬해 석방됐다.

이 사건은 1970년~1980년대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티니 초대이 인권운동이자 아시안 인권재판에서 최초로 승리한 케이스로 평가된다. 한인사회는 물론, 일본, 중국, 필리핀계에서 백인, 흑인, 히스패닉 등 다양한 인종이 합세한 인권운동이었으며, 소수계 이민자들은 물론 타인동과의 화합 및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시킨 사건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철수 씨는 2014년 62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선댄스영화제는 독립 영화와 다큐멘터리 영화를 대상으로 한 미국 최대 독립영화제로 매년 유타주에서 개최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오프라인으로 개최됐다.

엔하이픈 정규 1집 리패키지, 미 빌보드 앨범 차트 상위 진입

그룹 엔하이픈의 정규 1집 리패키지 '디멘션 : 앤서' (DIMENSION : ANSWER)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상위권에 진입했다.

지난 25일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1월 29일 자)에 따르면 엔하이픈의 '디멘션 : 앤서' 는 '빌보드 200' 차트에서 14위를 기록했다.

엔하이픈의 음반이 '빌보드 200' 차트에 오른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미니 2집 '보더 : 카니발' (BORDER : CARNIVAL)이 18위로 처음 진입한 데 이어 정규 1집 '디멘션 : 딜레마' (DIMENSION : DILEMMA)로 11위까지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앨범까지 합치면 3개 앨범 연속 메인 차트에 올랐다.

타이틀곡인 '블레스드-커스드' (B-lessed-Cursed)는 '월드 디지털송 세일즈' 차트에서 14위에 올랐다.

▶ 엔하이픈. 사진=빌리프랩

낱말퍼즐 정답

1 나	비	효	2 과	■	3 광	복	4 절
대	■	■	거	■	주	■	치
5 지	6 장	■	7 제	8 자	리	■	부
■	9 사	면	■	만	■	10 무	심
11 새	치	■	12 항	■	13 객	지	■
옹	■	14 복	고	15 풍	■	16 개	17 벽
지	■	숭	■	운	■	■	계
18 마	니	아	■	19 아	전	인	수

1405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47에 있습니다)

5			7				8	
	1				2			3
		2	3			6		
7		4		5				
			2				1	8
		6				7		5
	6			1	3	8		
3			4		8			
	7						3	9